

배상책임보험 가입 '순항' 7월 현재 4천명 돌파

치협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보험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치과의사가 4천명을 돌파했다.

배상책임보험 운영사인 엠디하우스에 따르면, 7월 23일 현재 삼성생명 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신청서를 기준으로 할 때 4002명이며, 이 가운데 가입자는 3925명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치협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높이고 수 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삼성화재로 변경에 따른 회원들의 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입자를 월별로 볼 때 5월에 가장 많은 2553명이 가입한 이

래 6월에만 461명, 7월 현재까지 856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 됐다. 또한 갱신을 대비 미리 신청서를 내거나 입금을 마친 가입자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9월말 만기자도 1180명이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 집행부를 믿고 회원들이 삼성화재로 계약을 변경해 줘 배상책임보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치협과 단체협약을 맺은 삼성화재에 가입함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시 실질적인 효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주질환 재진료 산정기준 치료종료 후 90일 이내로

만성적인 치주질환 초·재진료 산정기준이 기존에는 치료가 종결된 후 6개월 이내 내원해 동일부위를 치료했을 때 재진료로 인정됐던 것이 8월 1일부터는 치료종결 후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료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과 2개 항목을 포함, 모두 28개 항목의 '심사 지침 산정 개선안'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치과항목에서는 치근단절제술 당일엔 근관 충전 또는 당일

발수근충을 실시한 경우 지금까지는 근관충전 및 당일 발수근충은 주 수술 100%, 부 수술 50%로 산정했다.

그러나 8월 1일부터는 소정의 금액을 각각 산정한다고 바뀌었다.

또 치과에서 만성적인 치주질환의 경우 초·재진 산정기준도 치료종결 후 6개월 이내에 내원, 동일부위를 치료한 경우 재진료로 인정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료로 인정키로 했다.

치의신보 열독률 70% 넘어 치과계신문 중 신뢰도도 으뜸

치과계 전문지 가운데 치의신보에 대한 열독률이 타 신문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월 중순에 열린 대규모 심포지엄을 주최한 한 업체의 조사에서도 응답자 103명중 80명(77.7%)이 주간지 가운데 치의신보를 주로 열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6월 5일부터 7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SIDEX 2003 기간동안 신생업체인 모회사가 부스를 방문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광고매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66.3%가 치의신보라고 응답했다.

치의신보 다음으로 S지가 두 번째를 차지했으나 응답률이 33.1%로 치의신보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사에 응한 202명 가운데 복수응답자를 포함 치의신보가 134명, S지가 67명, 광고전문지인 K지가 39명, 각종 학회지가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는 치과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치의신보에 대한 열독률과 신뢰도가 사설신문에 비해 훨씬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의 자료여서 치과의사들과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 전사회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이 서울회원들이 대부분인데도 치의신보에 대한 관심도와 열독률이 높은 지방까지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